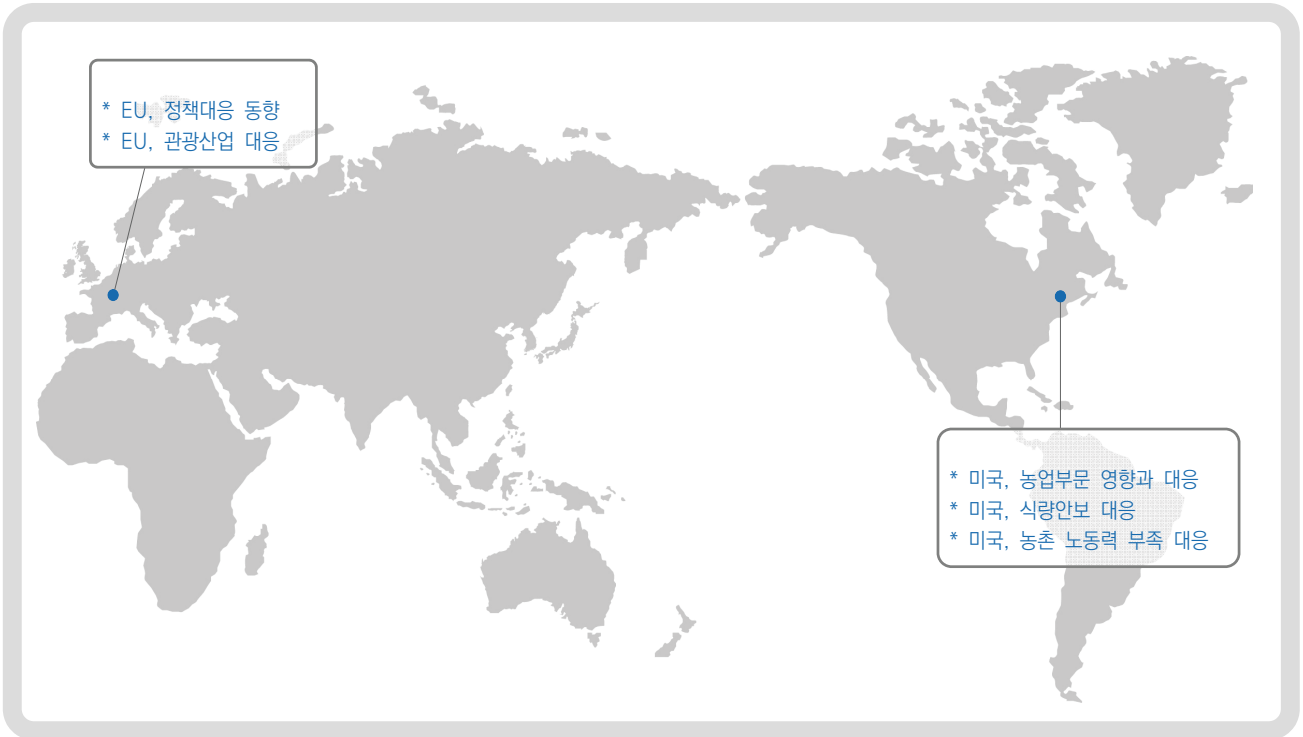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 (2020. 4.): EU·미국 농업분야 코로나 확산대응 동향



1 EU, 정책대응 동향¹⁾

- EU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당국 요청에 따라 직접지불금과 일부 농촌개발프로그램 상의 지원금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²⁾하도록 허가함.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연장 여부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1)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2020.3.17.),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보도자료(2020.3.9.),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2020.3.18.) 내용을 미래 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마감일을 2020년 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함.



- 독일 농림부 장관(Julia Klöckner)은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독일 농업부문에서는 매년 약 28만 6,0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함.
 - i)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과 ii) 외국인 노동자 체류 허용 기간을 일시적으로 7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한편, 독일은 다른 산업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음.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슈퍼마켓과 기타 소매상들이 야간에도 상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 이는 위생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 중에 있음.
 - 한편, 영국 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 연장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농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 감소를 우려해 국가적 홍보를 실시하고, 이탈리아산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규제·차별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개설함.

- EU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농식품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음.
 - (CAP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기존 2020년 5월 15일에서 6월 15일로 변경
 - (보조금 증가) 임시 지원체계 채택으로 농가는 최대 10만 유로, 농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최대 80만 유로를 지원받음. 단, 회원국이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aid)³⁾와 병행하는 경우, 농가는 정부로부터 총 12만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회원국 간 농식품 이동 원활화) 국경 통과 절차에 1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Green Lanes') 농식품 유통 속도를 개선함.

3) 회원국이 3년간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함.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농업부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중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회원국들은 자국 내 계절 근로자 수요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계절근로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계절 근로자의 보건·안전상 보호 필요성에 대해 통지해야 함.
- 영국 농식품협회는 앱(App) 개발사 시프트(Syft)⁴⁾와 16주간의 협정을 맺고 실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학교에 과일·채소,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허가했음. 한편, 학교에 납품되지 못한 농산물은 병원, 자선단체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될 것임.
- 유럽연합투자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목적으로 농업 협동조합과 농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7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신규 자금은 환경보호, 자원/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혁신, 경쟁력 관련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3.23.), (2020.4.13.)⁵⁾.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EU, 관광산업 대응⁶⁾

- 코로나19 발생으로 EU 관광산업 매출액은 매달 10억 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와 같은 주요 관광국에서는 상황이 더욱 어려움.

4) 시프트는 외식업·운송·물류 부문 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신속·정확히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5)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mmission offers to all Member States possibility to extend CAP payments application deadline, 2020.3.17.),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보도자료(New measures on night time deliveries to supermarkets to support coronavirus response, 2020.3.9.),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Germany considers special measures to ensure seasonal farm labour, 2020.3.18.)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Italy moves to protect agri-food exports amid COVID-19 outbreak, 2020.3.18.)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Commission stands ready to continue supporting EU's agri-food sector, 2020.3.25.)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Coronavirus: seasonal workers included in new guidelines to ensure free movement of critical workers, 2020.3.30.)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Food industry turns to recruitment app to fill vacancies with "furloughed" staff, 2020.4.1.)

농업전문지 IEG Policy 기사(Suppliers of fruit, veg and milk to EU schools can get COVID reimbursement, 2020.4.1.)

유럽투자은행 보도자료(Agriculture and bioeconomy: EIB approves €700 million of financing under the Investment Plan for Europe amid coronavirus pandemic, 2020.4.2.)을 참고 바람.

6) EU 의회에서 발간한 "COVID-19 and the tourism sector"(2020.4.)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이탈리아는 2020년 관광객이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전 세계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2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 사스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는 전년대비 0.4% 감소에 그침.
- 항공 여객업계가 입은 피해는 심각한 수준임.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비(Flybe)는 운행을 중단했으며 다른 항공사들도 일시적으로 모든 운행을 취소했음. 항공사들은 현금보유액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도 경험하고 있음.
 - 2020년 EU 항공승객 수는 전년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업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임. 특히 많은 호텔들의 수요 감소로 폐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임.
 - 프랑스 호텔 객실점유율은 3.3%에 불과했으며(2020.3.17일 기준),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에서는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아(2020.3.30일 기준) 호텔·식당·술집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됨.
-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 간 정책을 조율하고 백신 연구개발,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유연성을 강화하여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코로나19대응투자계획(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에서는 370억 예산을 책정하고 실직자를 지원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정부 부처, 국제기구,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법률 분석을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회원국에 여행 제한 조치를 권고하며 여행객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음.
 - EU 의회는 2020년 3월 26일 거의 만장일치로 i) 코로나19대응투자계획, ii) 공공보건 상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EU연대기금 적용범위 확대, iii) 공항슬롯 규정⁷⁾의 일시적 중지를 채택함.
 - 일부 회원국들은 피해 입은 관광업체를 국유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알리탈리아(Alitalia)를 인수했고, 영국은 철도를 부분적으로 국유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4.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항공사가 공항에서 할당받은 시간대에서만 운항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배정하는 규정임.



1 미국, 농업부문 영향과 대응

□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농업현황⁸⁾

- **[가격]** 세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선언 이후 미국 농산물 선물가격 하락 폭이 커짐.
 - 곡물 선물가격은 옥수수 10%, 밀 2%, 대두 4% 하락하였으며, 연료 소비 위축으로 에탄올 생산량 감소가 옥수수 가격을 더 떨어뜨림. 한편, 외식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육우 선물가격이 13% 하락함.
- **[수급]** 코로나19는 생산 충격보다 소비 위축으로 미국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사재기로 인한 미국 농산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음.
 -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연 시키거나 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외식업]** 자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증가하는 반면, 외식업에서 소비하는 식품은 감소함.
- **[농가소득, 가격]** 미국 정부는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⁹⁾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총 500억 달러(약 62조 5,000억 원 규모)를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함.
- **[인력]** 임시 노동자(guest worker)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H-2A 비자를 소유한 농업 종사자들은 멕시코로부터의 입국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

8) 미국 Farm Policy News의 "COVID-19 Has "Dimmed" Economic Prospects for Corn Belt Farmers"(2020.3.22.)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9) 미국 상품신용공사는 미국 농무부 산하로 1933년 농가소득과 가격안정 지원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됨.



□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농업부문의 영향에 대한 전망¹⁰⁾

- **[거시전망]**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는 미국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을 분석함.
 - 2020년 거시경제전망을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전망¹¹⁾함.

■ 미국 거시경제전망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소비지출	-5.0%	-1.0%	0.0%	금리	-0.5%p	0.0%	0.0%
식료품소비지출	-2.5%	-1.0%	0.0%	휘발유 소비	-10.0%	0.0%	0.0%
유가	-15.0%	-5.0%	0.0%	경유 소비	-5.0%	0.0%	0.0%

자료: 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

- **[가격]**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2020/21년 곡물가격이 5~10% 하락하고, 2020년 축산가격은 8~1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2019/20년 밀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영향이 미미하지만, 2020/21년 밀 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2020년 축산가격은 소비위축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지만, 2021년에 코로나19 충격은 완화되어 0.5~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가격변화 ■

마케팅 연도	2019/20	2020/21
옥수수	-8.2%	-9.4%
대두	-4.4%	-6.5%
밀	-0.9%	-5.3%
면직	-6.1%	-10.1%
회계 연도	2020	2021
소	-11.5%	-2.1%
돼지	-9.1%	-1.0%
닭	-7.8%	-1.2%
우유	-8.8%	-0.5%

자료: 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

10)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의 "Early Estimates of the Impacts of COVID-19 on U.S.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Farm Income and Government Outlays"(2020.4.)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1) 기존 전망치 대비 실질소비지출 -5.0%, 식료품소비지출 -2.5%, 유가 -15.0%, 금리 -0.5%)



- **[정부지출]** 곡물 가격 하락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에탄올 소비 감소로 2021년 옥수수에 대한 정부 지출은 10억 달러로 그 규모가 다른 작물(대두 2억 달러, 면직 6억 7,000만 달러)에 비해 큼.
- **[농가소득]** 2020년 농가소득은 곡물(119억 달러)보다 축산(202억 달러) 농가소득이 더 낮아지지만 2021년 곡물 농가소득(73억 달러)은 축산(26억 달러)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 회계연도 2021년 곡물 농가소득은 마케팅 연도 2020/21년 가격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 폭이 큰 반면, 축산은 사료값 하락, 유가하락에 따른 영농자재비 하락, 금리하락으로 인해 2021년 축산 농가소득 하락 폭이 작아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3.3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미국, 농촌 노동력 부족 대응¹²⁾

- 미국 농촌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외국인 노동자 부족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함.
- 2020년 3월 20일 국무부는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의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킴.
 - 일용직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게 발급하는 H2-A 비자는 모두 미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H2-A 비자를 소유한 노동자의 65%는 3월~9월에 미국으로 들어옴.
 - 미국 주요 곡물은 3월부터 5월에 심고, 6월부터 8월까지 수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비 지출 대비 수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작물보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적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농촌 커뮤니티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음.
- 현재까지 주 정부는 영사관이 H-2A 비자 첫 인터뷰를 보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인터뷰 면제를 부여하고, 48개월 안에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부적격 노동자가 아닌 경우 인터뷰를 면제해 줌.

12) 미국 Inside U.S. Trade의 "Ag community hopes to avoid crisis amid fears of labor shortage"(2020.3.30.)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 발생한 국가에서의 대사관과 영사관 출입 통제 및 비자발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H-2 비자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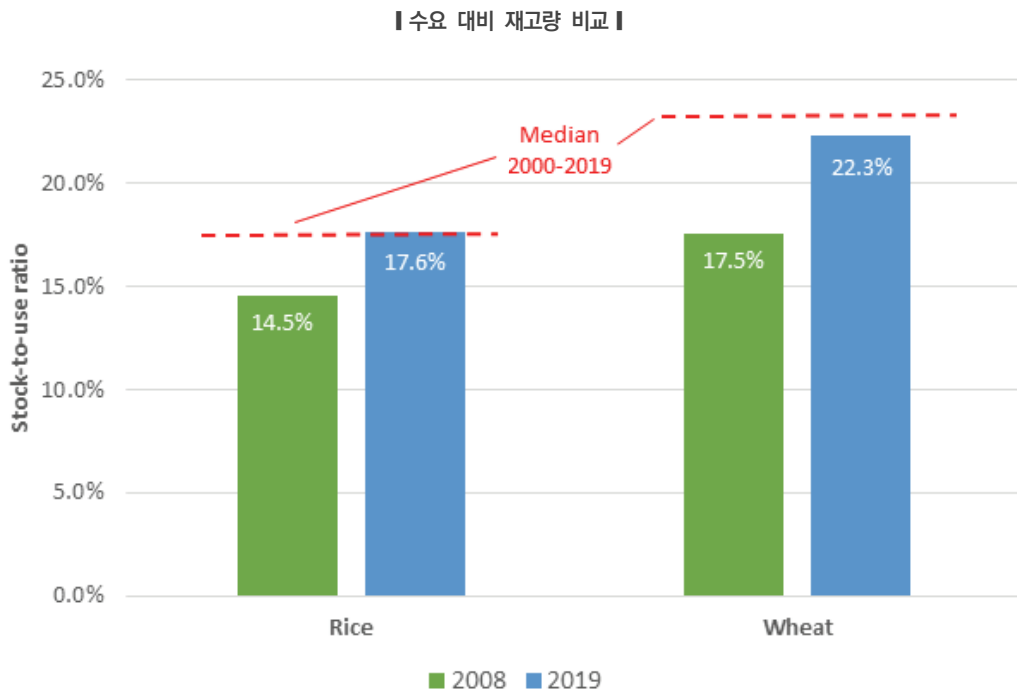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4.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미국, 식량안보 대응¹³⁾

- 코로나19로 과채류 공급 차질이 우려되지만 필수 농산물인 쌀, 밀, 옥수수의 공급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님.
-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 정책으로 인해 가격 폭등을 부추겼음.
 - 수출 제재로 필수 농산물¹⁴⁾의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국은 낮은 관세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싼 원자재 가격과 시장가격 상승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특히, 2007-2008년 동안 쌀 가격은 50% 이상 상승함.
- 2007-2008년 식량 위기 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농산물 수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시리얼, 유지작물, 채소 수출을 4월 15일까지 제재, 베트남은 쌀 수출을 전면 통제, 러시아는 밀 수출을 제재함.
- 각 국가별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제재는 전 세계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필수 농산물의 재고량 부족은 아직 없음. 수요 대비 재고량(stock-to use ratio)은 식량위기 때보다 높음. 특히, 중국을 제외하고 2019년 수요 대비 재고량은 지난 20년의 중간값 수준이기 때문에 필수 농산물에 대한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수 농산물 작황이 좋을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는 필수 농산물 중 밀과 쌀 생산량은 각각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좋은 작황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차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세계 농산물 수출은 주요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세계 밀 수출 3%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의 수출 제재,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베트남의 쌀 수출 제재는 필수 농산물 수입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제재는 지양해야 함.

13) 미국 IFPRI의 "COVID-19: Trade restrictions are worst possible response to safeguard food security"(2020.3.27.)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4) 주요 식량 작물로 쌀, 옥수수, 밀, 콩 등을 포함함.



자료: IFARI, USDA-PSD.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4.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